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가온 다솜

2018. FALL



가을 다온

CONTENTS

2018. FALL



기관소개 및 홈페이지 소개

03

삶의 노래

13

실로암 소식

04

실로암 칼럼

14

프로그램 스케치

09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15

직원 및 거주인 교육

12

실로암요양원

발행일 2018년 10월 1일(통권27호) 법인대표 김선태

발행인 박지훈 편집인 장혜승 발행처 실로암요양원 주소 (1142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656

TEL 031. 876. 2900 FAX 031. 876. 2990 <http://www.silwelnh.or.kr>

표지-내지 디자인 이미지 Getty Images Bank

기관소개

- 원장 박지훈
- 설립일 2010년 7월 19일
-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법인대표 김선태 목사
- 이용정원 30명
- 이용현원 29명
- 직원정원 29명
- 직원현원 28명



본관

신관

홈페이지 소개

실로암요양원 홈페이지(www.silweinh.or.kr)에 방문하셔서 요양원에 대한 정보와 시설안내 및 프로그램 등을 편리하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iloam Center for the Blind website. The header features the logo '실로암요양원' and navigation links for '요양원소개', '시설안내', '프로그램', '사단나눔', and '알림마당'. The main banner image shows a close-up of a hand holding a yellow dandelion flower. Below the banner, there is a message in Korean: '웃음꽃이 활짝피는 행복한 요양원' and '가족중심의 가치와 삶의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나누을 실천하는 요양원' followed by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언제나 푸른색으로 돌아가는 가치로 되고 있습니다.' The footer contains links for '시설안내', '입소안내', '주 환선물', '사랑모사전형', '프로그램', '사단나눔', and '알림마당'. It also includes a photo gallery section titled '포토갤러리' and a news section titled '실로암소식지'.

아직도 어딘가에는 달려갈 길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둠뿐이기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고령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케어서비스와 섬김..

실로암요양원은 눈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실로암요양원은 따뜻한 손을 잡아드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로암 소식

수상소식



2018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박성일 물리치료사가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장혜승 생활 재활교사가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거주인분들을 항상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섬기며,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거주인분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거주인들의 건강한 삶을 든든히 지켜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추석행사



9월 21일, 추석을 맞이하여 뜻깊은 추석명절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장 현대옥회장님께서 방문하여 인사말과 함께 추석선물을 증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반야월예술단의 흥겨운 노래공연으로 명절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었으며 공연 후에는 맛있는 뷔페로 풍성한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주인 모두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부지원 및 도움의 손길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7월 요양원에 중증장애인 재활을 위한 전문재활장비가 들어왔습니다.

1. 서울시 기능보강사업 재활장비 지원안내 (총사업비 : 41,00만원)

① 물리치료(2종)



전자동치료베드 - 베드의 높이나 등받이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 있어 치료를 받기 위한 자세를 취하기 탁월하며 넓은 베드의 면적으로 다양한 관절가동범위운동의 적용이나 도수치료적용 시 뛰어난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견인치료기 - 척추와 척추사이를 넓혀 줌으로써 척추간의 압력을 감소시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박을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시키고 신경학적 후유증을 감소시킨다

② 언어치료(4종)



Doju 다감각 발달 프로그램 - 다양한 감각훈련 및 직업재활 훈련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트로, 패턴인식, 기억력 발달, 인지, 감각훈련, 수학, 분류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특수재활 감각운동 지각훈련 프로그램입니다.

VITALSTIM(연하장애 전기자극 치료기) - 연하곤란 전기자극 치료기로서 유일하게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는 연하장애를 가진 환자(모든연령 대상)에 대한 신경근육 전기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삼킴능력을 증진 및 회복시키는 전기 치료기입니다.



닥터스피치 - 음성 언어장애와 청각장애인의 교정치료를 위한 임상도구입니다. 이는 음도, 강도, 유무성 발성, 발성시작, 최대발성 시간, 소리 등의 각 영역별 언어치료를 위한 진단과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지스피크 마이크 - 목소리와 음악, 노래 등을 녹음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면 자동으로 MP3파일 또는 WAV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며, 바로 재생하여 들어볼 수 있습니다.

③ 작업치료(19종)



각종 도구로 나사를 조이고 푸는 치료도구인 워크벤치를 통해 팔, 손목, 손등의 소근육과 상지근육의 근력 및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핀3개를 손가락으로 집어 훌에 맞추는 오코너 손가락 민첩성 검사도구를 통해 섬세한 협응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SSCL 장애인 신체기능향상 프로젝트사업” 선정 (200만원)
3.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석명절행사 지원사업” 선정 (250만원)
4. “E1 희망을 충전하고 달리는 오카사업” 선정 (경차 1대)



하계수련회



7월 31일, 경기도 장흥에 위치한 "안고령 계곡"으로 하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빼어난 경치와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계곡에서 거주인들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차디찬 계곡 속에 몸을 담그며 한 여름의 더위를 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물놀이와 함께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 다양한 음식을 즐기며, 최고의 피서를 보낸 몸과 마음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실로암요양원 개원 8주년 감사예배



7월 15일, 실로암 요양원 개원 8주년 감사예배가 은혜 속에 드려졌습니다. 최동익 사무총장님의 "당신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하였으며, 이영태 어르신의 아름다운 하모니카 선율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음악점역팀 박세희 선생님의 찬양이 드려진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시간이었습니다. 8주년 감사예배에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거주인분들을 성심성의껏 챙겨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8년 상반기 가족간담회



7월 7일, 제1차 가족 간담회가 진행되었으며 총 9가족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시설 운영현황, 사업 안내, 안건 토의, 이야기 나눔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가족간담회를 통하여 직원들과 보호자들이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보호자 가족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제2차 운영위원회



7월 13일, 제2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상반기 사업평가 보고, 상반기 예산 현황, 식자재 업체 선정 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옥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양주시지회장, 김진희 거주인 가족 대표, 거주인 대표인 김동희 어르신, 박지훈 원장, 김형도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시설 운영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실로암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스케치

건강산책

월 2회



천만 송이 천일홍 축제가 열리는 곳! 양주 나리공원으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넓은 부지에 천일홍 꽃밭과 다양한 꽃들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꽃의 촉감과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산책도 즐기며 자연을 한껏 만끽하는 기분 좋은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야외나들이

월 1회



8월 31일, 야외 나들이로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에 다녀왔습니다. 거주인들은 기대 반 설렘임 반으로 롯데월드에 입장하였고, 바로 민속박물관 저자거리에서 맛있는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롯데월드 매직패스를 이용하여 기다리지 않고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어 매우 좋았습니다. 회전목마와 신밧드의 모험 등 여러 가지 놀이기구를 탑승했는데 그중에서도 신밧드의 모험이 시원함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어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거주인들은 다음 기회에 재방문 하고 싶다고 표현하면서 야외나들이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장체험 월 2회



현장체험으로 외식, 피복구입, 마트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월 현장체험을 통해 거주인들의 욕구 충족 및 요양원 생활에 활기를 더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연 1회



2018년 9월 18일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물 맑은 양평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주최로 실시된 이번 체육대회에 저희 실로암요양원은 훌라후프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맑은 하늘과 푸른 잔디가 어우러진 양평종합운동장에서 기분전환 및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었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건강체조 월 2회



거주인의 건강을 위하여 요가체조 및 밴드운동을 진행되었습니다. 스트레칭과 요가체조를 통해 유연성을 증진시키며 밴드 운동을 함으로써 입소자들의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치료레크레이션 월 2회



열띤 응원과 협동심을 볼 수 있는 치료체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서로 경쟁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며 신체와 두뇌를 활용 할 수 있어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일잔치 월 1회



매월 초 생신을 맞이하는 거주인들을 위해 모두 함께 생일잔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는 거주인들의 축하메시지, 직원들의 손 편지 등을 전하는 감동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잔치 후에는 맛있는 음식을 드시는 시간도 진행되었습니다.

노래교실 월 1회



월 1회 반야월 예술단 분들이 요양원에 방문하셔서 거주인들과 함께 즐기는 공연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노래에 흥이 넘쳐 어르신들과 함께 춤도 추며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직원 및 거주인 교육



공공후견제도의 이해

9월 4일 15:00~17:00

공공후견제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통하여 공공후견제도가 필요한 요양원내의 다양한 거주인의 욕구 및 지원체계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인권교육

9월 12일 15:00~17:00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교육으로, 거주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의 열띤 토론과 함께 알찬 강의였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더욱 잘 섬기는 요양원 직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전관리교육 (연 2회)

중증장애인의 금전관리교육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향상을 위해 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금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배울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건강교육 (연 1회)

8월 14일 14:00~16:00

거주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주시보건소에서 고혈압과 당뇨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후 혈압과 혈당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인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어르신들을 케어해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의 노래

안녕하세요?

지정규라고 합니다.

또 훌라후프 할머니라고도 부릅니다.

훌라후프 할머니란 별명이 붙은 것은 제가 훌라후프를 너무 열심히 돌려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요즘은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2, 3년 전만 해도 하루에 5천 개씩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데는 밥술이라고 먹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던 낙제하지 못했던 그 시절,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고 공사판에서 힘든 일을 했던 억척스러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잠시도 앓아 있지 못하는 성격으로 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감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각막에 이상이 오면서 시력을 잃어갈 무렵, 실로암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중도에 시각장애인 된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알게 되고,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이곳 실로암요양원이 개원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70대 초반 이어서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고 특히 산책이나 나들이는 언제나 먼저 나서서 참여할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거주인 지정규 어르신

82세 | 2010년 7월 입소

세월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나이 여든 셋, 훌라후프 5천 개도 못 돌리고, 그나마 보이던 시력도 희미해져 갑니다만, 오래전에 갖게 된 기독교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교회에서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이곳 생활재활교사 선생님들이 크게 복사해준 찬송가 가사를 외울 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들딸들이 모두가 효자효녀들이어서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손자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좋습니다. 목사님이 저보고 그립니다. ‘지 권사님은 127세까지 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재미있게 사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곳 요양원에서 건강관리까지 다 해주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뜻을 직원들이 감당해 주니 이 또한 고마운 일이지요.

저는 그야말로 소원이 있다면, 이 좋은 세상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소원은 우리 실로암요양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들과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실로암 칼럼

10여 년 전에 깊어졌던 성공회대 故신영복 교수의 엽락분본(葉落糞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교수는 세 개의 그림을 그려 가면서 강연을 했는데, 앙상한 나뭇가지에 나뭇잎이 몇 개 붙어 있는 나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가지 끝에 빨간 열매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당시 어수선했던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다분히 시국과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런 상황에서는 빨리 나뭇잎을 떨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뭇잎이 많으면 영양분을 나뭇잎이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하나 남은 열매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뭇잎은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민운동은 나뭇잎들이 전부 떨어져 나무에게 ‘거름’한다는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근대라는 문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근대라는 문맥은 ‘개발’, ‘효과성’, ‘성과’와 같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너무 커기 때문에 그동안 정말 본질이 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근대라는 문맥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스스로 ‘거름한다.’라는 말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보나 보수냐를 따지기 전에 꼭 필요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정말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하여 떨어져서 ‘거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 핵심 사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름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프란시스 쉐퍼는 이 시대의 문화를 일컬어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며 기계로 취급하는 병든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 오늘날 종교를 바라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기본 이념조차도 버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차별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엽락분본(葉落糞本)의 삶을 통하여 약자들을 위한 거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약간은 고달프기는 하지만 푹 썩어서 거름이 되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실로암요양원 김무경 원목

후원요청(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기다립니다)

옥상방수공사

목표금액 : 10,000,000원

시설 거주인분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시설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발생문제 해결 및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고자 후원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7~9월 후원금 결산보고

		(단위: 원)	
세입		세출	
비지정후원금	10,065,320	사무비	5,426,665
지정후원금	400,000	재산조성비	2,288,000
기타	-	사업비	983,460
계	10,465,320	계	8,698,125

자원봉사자와 후원자(7월~9월)

자원봉사자(2018년 7월~9월)	후원자(2018년 7월~9월)
단체 광적 남원추어탕, 소풍,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 아워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개인 무지개호스피스, 아이노스양상블, jj church, 반야월예술단, 26사단, 더케이손해보험, 최귀남 단체 광적 남원추어탕, 소풍,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실로암요양원, 아워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개인 강승지, 강영순, 고선화, 고예진, 곽정아, 권수진, 권희정, 김경민, 김광훈, 김광희, 김동희, 김말년, 김무경, 김미경, 김미영, 김병준, 김병숙, 김선태, 김선호, 김숙현, 김영선, 김영준, 김예리, 김용기, 김은실, 김은철, 김은희, 김인경, 김인자, 김정현, 김주리, 김태웅, 김태웅, 김태훈, 김현도, 김형도, 김혜옥, 김호직, 나병태, 남성우, 노성은, 노현지, 박고심, 박성일, 박세희, 박옥희, 박운애, 박인수, 박정훈, 박지훈, 박희범, 백기령, 변현미, 서동균, 성옥순, 성지혜, 신재유, 신혜경, 안정임, 양새롬, 엄현희, 엄승환, 유자영, 유흥진, 윤동혁1, 윤동혁2, 윤성재, 윤재영, 윤찬호, 이강일, 이광열, 이금선, 이미경, 이범준, 이봉희, 이상기, 이상미, 이상규, 이숙경, 이순희, 이승우, 이연수, 이영태, 이윤규, 이윤희, 이재영, 이정원, 이정환, 이진용, 이하나, 이혜숙, 이혜옥, 임국화, 임은성, 임준규, 장수진, 장은경, 장혜승, 전예리, 전정희, 전현출, 정구연, 정은경, 정지혜, 정혜미, 정혜정, 조경조, 조영순, 지정규, 차대숙, 채민형, 최도영, 최문옥, 최영아, 최영훈, 최혁진, 하은주, 한승진, 한재근, 한주희, 함은창, 함지훈, 함현식, 허은수, 홍경란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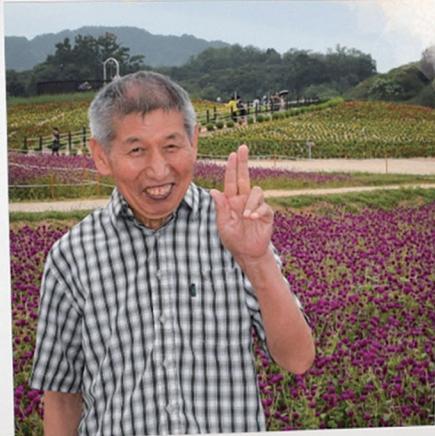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요양원
결연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물품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silweinh.do

자원봉사 안내 ☎ 031-876-2900

증·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활동	생활실 청소, 안내보행, 밀벗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외부활동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등
전문봉사활동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치료봉사활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2018 #당근꽃밭



“너”
“나”
예쁜거야... ｼ

세상을 살다보면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

신기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이해하기 힘들 일, 누군가를 사랑했던 일 등.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사계절도 그럴 것 같다.

뜨거운 태양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여름에는

치열한 삶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뜨거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픔과 슬픔을 견디기도 하고

가을에는 따사로운 햇살과 적당히 시원한 바람으로

많은 곡식과 풍성한 과실을 수확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실로암요양원은 뜨거운 여름을 힘겹게 견디어 낸 거주인 들에게

가을과 같은 행복한 삶의 시간을 드리고 싶다.

뜨거운 땀과 뜨거운 눈물을 닦아 드리고 싶다.